

(주소) 12283 /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747번길 (전화) 031-579-6014 (팩스) 031-579-6041

배 포 일	2024.9.23.	쪽수	사진	누리집	자료 문의
보 도 일	2024.9.24.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유적답사 이동 마당극 <정약용 선생님과의 하루> 공연		7	있음 (4매)	www.silhak.ggcf.kr	부 서 : 학예연구팀 사업/홍보담당 : 박한별(579-6044)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유적답사 이동 마당극 <정약용 선생님과의 하루> 공연 -창작 판소리·마당극 연출의 대가 임진택표 마당극-

▶ 박물관 유적지가 멋진 무대로... 춤, 노래, 판소리, 탈춤, 풍물 등 다채로운 전통연희와 함께하는 이동 마당극

유적답사 이동 마당극 <정약용 선생님과의 하루>(총감독 임진택) 오는 10월 5일 (토)~6일 (일) 오후 2시 30분 실학박물관과 정약용 유적지에서 펼쳐진다.

<정약용 선생님과의 하루>는 우리나라 창작 판소리와 마당극 연출의 대가 임진택 명창이 총감독을 맡았다. 이번 공연은 실학박물관의 옥외 공간인 다산정원과 정약용 유적지에서의 상연을 염두에 두고 두 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획된 '장소 특정적' 공연이다. 춤과 노래, 판소리와 탈춤, 풍물 연주 등 다양한 전통연희를 통해 다산 정약용의 삶과 실학 정신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실학박물관에서 출발해 정약용 유적지까지 이동하면서 유적지 곳곳을 답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 창작 마당극 51주년 맞아, 마당극의 효시 임진택 표 마당극 <정약용 선생님과의 하루>

유적답사 이동 마당극 <정약용 선생님과의 하루>는 2002년 남양주 세계야외공연축제 기획공연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여러 해 동안 정약용 유적지에서 봄·가을에 주말 상설 공연으로 공연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된 이동 마당극으로 그 신선한 발상과 유익한 만남에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우리나라 마당극의 효시로 손꼽히는 임진택 명창이 총감독을 맡았으며, 임진택 특유의 연출 방식인 해학과 풍자가 잘 드러난다.

특히 올해는 임진택이 1973년 서울제일교회에서 탈춤과 결합한 우리나라 최초의 마당극 <진오귀국-청산별곡>(김지하 작·임진택 연출)을 선보인 지 51년이 되는 해이다. 그는 1980년대 김지하 담시를 판소리로 만든 <소리내력>, <오적>, <똥바다>를 시작으로, <백범 김구>, <남한산성>, <세계인 장보고> 등 사회 현실문제를 탈춤, 판소리, 풍물, 굿 등 전통연희와 결합한 다양한 창작 작품을 통해 전

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 재창조를 시도해 왔다. 그중에서도 <정약용 선생님과 하루>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적답사 이동 마당극’으로, 임진택표 마당극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형태로 평가받는다.

20년이 지나 올해 다시 공연되는 <정약용 선생님과 하루>는 정약용, 정약전 형제의 특별한 우애가 담긴 ‘나주 밤남정 이별’ 장면과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의 애절한 정을 담은 ‘하피첩’ 장면을 판소리로 보강하였고, 총감독을 맡은 임진택 명창이 직접 도창(導唱)*한다. 출연 배우들은 악사들의 생생한 연주에 맞추어 1인 다역으로 흥겨운 노래와 춤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마이크와 스피커 등 음향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 판소리 고유의 거칠고 탁한 음색과 우리 악기의 매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도창(導唱) : 창극(唱劇)에서 연기자가 아닌 제삼자가 무대 뒤나 옆에서 극의 전개를 창으로 해설하는 일

▶ 마당극으로 보는 살아 숨쉬는 듯 선명한 다산 정약용의 일생

경기도는 실학의 본고장으로, 특히 실학박물관과 정약용 유적지가 위치한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마재마을은 정약용 선생이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고, 오랜 유배 생활 끝에 돌아와 학문을 정리하고 생을 마감한 곳이다. 이곳은 정약용이 청년기 성장과 사상적 성숙을 겪었던 장소이며, 강진 유배 중에도 늘 그리워했던 고향이었다. 실학박물관과 민족예술창작원-마당판은 실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의미 있는 경기도의 문화유적을 보다 더 활성화하고자 이 공연을 준비했다.

다산 정약용 선생(丁若鏞, 1762-1836)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이자 사상가로, 행정, 법률, 경제, 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인 사상들을 제시했다. 18년간의 유배 생활에도 500여 권의 저서를 남겼다. 특히 그는 애민 사상을 바탕으로 한 대표 저서 『목민심서』, 『경세유표』, 『흙흙신서』 등을 통해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정책과 제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관객이 직접 공연에 참여하는 이동 마당극 형태로 진행된다. 실학박물관과 정약용 유적지 곳곳을 이동하며 장면마다 각각 다른 전통연희 방식의 공연을 선보인다. 관객들은 춤과 민요, 탈춤과 판소리, 풍물굿과 함께 문화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유적지를 답사하면서 공연 속으로 들어가 정약용이라는 인물과 마주하여 그의 생애와 실학 사상을 쉽게 이해하고, 오늘의 삶에 올바르게 적용하는 자각과 체험의 장을 경험할 수 있다.

▶ 실학박물관과 정약용 유적지를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이번 공연을 총괄한 임진택 총감독은 “이번 공연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특히 유익할 것이다. 가을 나들이를 위해 주말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흥겨운 우리 전통연희의 매력을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이번 유적답사 마당극을 통해 실학박물관과 정약용 유적지가 지역을 대표하는 살아 있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며 “향후 계속해서 경기도 곳곳에 숨겨진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창작 연희를 시도함으로써 도내 지역 문화예술

인의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 대표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창작 판소리 50주년을 기념하여 연간 기획으로 토크콘서트 〈소리내력〉, 공연 〈안중근〉, 〈전태일〉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2024 경기도 문화의날 문화예술지원프로그램’ 선정 사업으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관장 김필국), (사)민족예술창작원 마당판(이사장 김도현), 남양주민예총(대표 양정순)이 공동 주관한다.

공연은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현장 관람할 수 있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학박물관 누리집(<https://silhak.ggcf.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실학박물관(031-579-6044) 또는 (사)민족예술창작원 마당판(02-733-1518)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1. 〈정약용 선생님과 하루〉 공연 개요

붙임 2. 공연 포스터 및 관련 사진 4매

붙임 1. <정약용 선생님과 하루> 공연 소개

■ 공연 개요

- 공연명 : 정약용 선생님과 하루
- 공연일시 : 2024.10.5.(토) ~ 10.6.(일) 오후 2시 30분
- 공연장소 : 실학박물관, 정약용 유적지
- 관람료 : 무료
- 주최 및 주관 : 경기도 주최,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사)민족예술창작원마당판·남양주민예총 주관
- 제작 및 출연
 - 총감독 : 임진택
 - 극본 : 양정순
 - 연출 : 배정미
 - 음악 : 김상철(민족음악인협의회 의장)
 - 안무 : 장순향(전 한국민족춤협회 이사장)
 - 출연 : 정연도, 이계영, 배정미, 강응민, 정희윤, 강혜림, 배진영, 서명재, 김영민, 이수인
 - 특별출연 : 도창(導唱) 임진택
 - 악사 : 김지원, 이강산, 최무근
 - 홍보·기획 : 김종호

■ 공연 주제 및 의도

공연 기획 의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약용 선생의 생애를 기리고 그의 실학사상을 오늘날 다시 실현한다. 정약용 선생은 당시의 부패한 사회상과 봉건적 폐해를 타개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으나 그의 생전에 근본적인 개혁은 실현되지 못했다. 그는 방대한 저술을 통해 그 임무를 후대에 맡겨놓았다. 이제 우리는 선생의 생애와 실학사상을 기리고 그 뜻을 현재에 실현하는 방안으로 실학박물관과 정약용 유적지에서 이동 마당극을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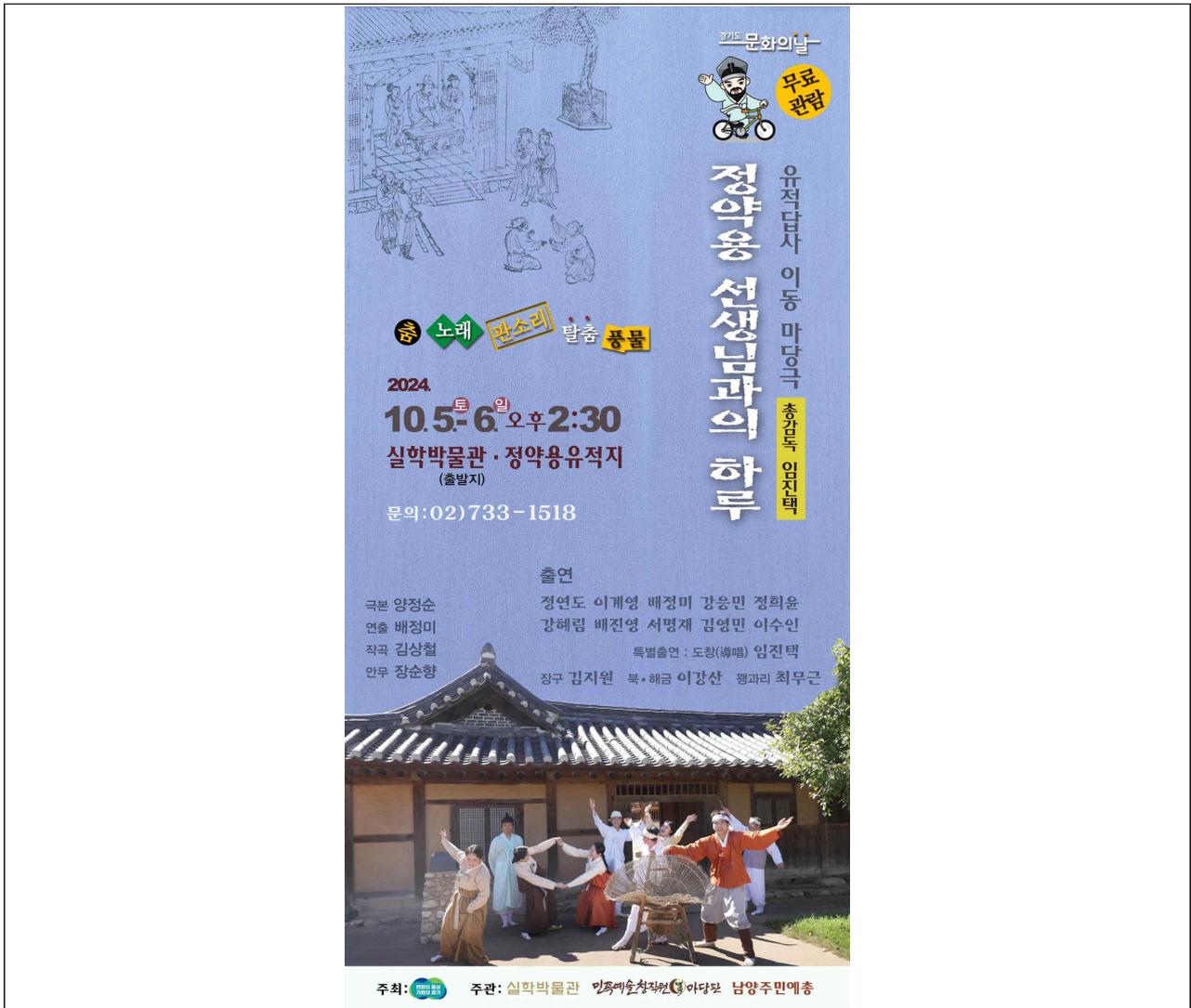
둘째, 실학박물관과 정약용 유적지를 살아있는 교육 현장으로 활용한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마재마을은 정약용 선생이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고, 오랜 유배 생활 끝에 돌아와 학문을 정리하고 생을 마감한 곳이다. 그의 청년기 성장과 사상적 성숙은 모두 마재마을에 살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실학박물관과 정약용 선생의 생가와 묘소를 배경으로 펼치는 마당극을 통해 선생의 삶을 되돌아보게 할 뿐 아니라 실학사상을 구체적으로 풀어 보다 쉽게 이해하게 하고, 유적지가 결코 과거가 아닌 현재이며 미래임을 깨닫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

셋째, 지역 문화유산을 소재로 공연예술 작품을 개발해 관광 상품화함으로써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 시키고자 한다. 유적답사 이동 마당극 <정약용 선생님과 하루>는 실학박물관과 정약용 유적지가 위치한 경기도 남양주 지역의 상징적인 역사 인물인 다산 정약용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 또한 실학박물관 옥외정원인 다산정원과 정약용 유적지에서 상연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극본을 쓴, 두 공간의 특성에 최적화된 장소 특정적 공연이다.

■ 공연 구성

구분	주제	내용
도입	문화 해설사와 관객의 첫 만남	공연은 문화해설사가 실학박물관과 정약용 유적지에서 펼쳐질 공연에 대해 관객들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1	책탈 마당	정약용이 저술한 목민심서, 흠흠신서, 경세유표 책 탈들이 등장하여 오늘날 실학사상이 죽어 있음을 풍자한다.
2	생가(生家) - 정약용의 어린 시절	어린 시절 귀농의 영특한 모습이 부모와 주변 사람들을 통해 보인다. * 귀농(歸農): 정약용의 어린시절 이름
3	관아 - 부패한 당대 현실에 대한 직시	청년 정약용이 목민관인 아버지를 따라 부임처에 갔다가 백성들의 참혹한 생활과 아전들의 횡포를 목격한다.
4	당쟁 - 소모적인 당파싸움을 풍자	임금의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를 두고 벌이는 소모적인 당쟁을 희화화한 이 장면은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반복되는 권력 다툼을 풍자한다.
5	정조와의 만남	어질고 현명한 임금 정조와 바르고 재능 있는 정약용의 만남
6	곡산 부사 -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목민관	황해도 곡산 부사로 부임하던 정약용은 세금 착취에 맞서 난리를 일으킨 이계심을 흔쾌히 용서하고 그의 행동을 치하한다.
7	사직상소 - 관직에서 물러나는 정약용과 정조의 죽음	정약용은 자신의 주목받는 삶이 세상의 질서 속에 살아남기 어렵다는 예감을 가지고 사직상소를 올리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정조의 죽음으로 다시 파란을 맞는다.
8	유배 가는 길 - 충주 하담, 나주 밤남정 주막	정약용은 참담한 심정으로 유배지에 오른다. 충주의 부모 산소를 지나면서 통곡하고, 나주 밤남정에서 형 정약전과 이별하면서 다시 한번 통곡한다.
9	강진주막 사의제 - 약재 타령, 천자풀이	강진의 백성들은 정약용을 죄인으로 여겨 차갑게 외면하고, 정약용은 병든 백성들 치료를 해주거나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며 그들과 가까워지게 된다.
10	애절양 - 참혹한 백성들의 삶	백성들의 궁핍한 삶을 목격하며 그러한 사실들을 기록하는 정약용. 그러던 중 세금 포탈에 견디다 못한 어느 사내가 자신의 남근을 자르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난다.
11	다산초당 - 저술활동, 책타령	외가인 해남 윤씨 가의 도움으로 다산에 거처를 마련한 정약용. 이때 제자들이 찾아오고 정약용은 그들과 함께 시국을 토론하고 미루고 있던 책들을 저술한다.
12	하피첩 - 마재에 두고 온 아내와의 사연	고향 마재에 남아있던 아내가 시집을 때 입고 왔던 치마폭을 보내니, 정약용이 이 치마로 서첩을 만들어 아들들에게 줄 교훈을 써서 보낸다.
13	해배 - 고향 마재로 돌아오다	유배 생활을 한 지 18년 만에 해배 소식이 들려온다. 정약용은 제자들과 아쉬운 이별을 하고 수백 권의 책을 수레에 가득 싣고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온다.
마무리	묘소참배	연희자와 관객들이 정약용 선생님의 묘소로 올라가 참배한다.

붙임 2. 공연 포스터 및 관련 사진 4매



▲ 마당극 ‘정약용 선생님과 하루’ 포스터



▲ 마당극 ‘정약용 선생님과 하루’ 출연 배우 단체 사진



▲ 마당극 '정약용 선생님과 하루' 공연 모습



▲ 공연 총감독과 도창(導唱)을 맡은 임진택 명창